6·2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1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야4당 대표가 국민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노란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충청·강원·경남·제주 '안갯속'

민주당 'MB 정권 심판론' 확산 수도권 역전 자신
한나라 '천안함 여파' 보수 결집 인천·충북 안정권
부동층 25%…세대간 투표율이 승패 분수령 될 듯

■전국 판세 분석해 보니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북풍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6·2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권 심판론 및 견제론'이 유권자 사이에 파고들어 힘을 얻으면서 곳곳에서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6·2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인천, 충남·북, 강원, 경남, 제주 등 6곳에서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과 강원 등에서 유권자 사이에 이상기류가 나타나면서, 한나라당 우위였던 기존 선거판세가 혼전으로 바뀐 것이다.

한나라당은 텃밭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4곳에서 확고부동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서도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접전지역 가운데서는 인천과 충북에서 승리를 점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북 등 호남 3곳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며, 인천과 충남은 박빙 우세로 판단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대전시장 선거에서 낙승을 기대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는 한나라당이 우세하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지만 인천에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를 막판 맹추격,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서울의 경우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경기에선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사퇴와 이에 따른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로의 후보단일화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며 막판 대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과 강원, 경남, 제주에서는 안갯속 판세가 선거 전날까지 이어지며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며 일부 지역에서는 1, 2위 후보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남에서는 민주당 안희정과 선진당 박상돈 후보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선진당 염홍철,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하다. 충북에서는 한나라당 정우택,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지 중 한 곳이 경남이다.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곳으로, 일반 여론조사와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은 선거 종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곳이다. 선거 초·중반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손쉽게 따돌리는 듯 했으나 주말을 거치며 선거판세가 급변, 초접전지로 분류됐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현명관, 우근민 후보 간 경합이 예측불허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일관된 추세를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혼전지역이 늘면서 승패의 분수령은 부동층의 향배, 특히 세대간 투표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이 20~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동층의 표심이 천안함 사건으로 결집도가 높아진 보수로 기울지, 아니면 야권후보 쪽으로 기울 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50대 이상은 한나라당 그리고 20~30대에선 야권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어느 연령대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 것이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간 대결 구도 사이에 끼인 40대의 표심은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유태명 유권자에 '선거공약서' 직접 배부

유태명 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는 1일 동구 발전의 비전을 담은 선거공약서 '유태명의 희망선언'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선거공약서에 ▲국립 광주도서관 유치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 ▲용산동 뉴타운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출산장려 시범구 조성 ▲매니페스토 선진도시 구현 등 6개 분야 17개 주요 공약 실천 계획을 담았다. 그는 "선거공약서를 배포하면서 구민들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새삼 느끼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리더십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송병태 "광산구 재정위기 해결사 뽑아달라"

송병태 국민참여당 광산구청장 후보는 1일 "광산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후보는 "올해 광산구의 재정자립도는 19.3%로 작년 대비 4%나 감소했고, 오는 9월부터는 법정경비인 공직자 급여조차 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산에 대해 잘 알고 행정경험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과 행정능력, 탁월한 예산확보 능력을 갖춘 후보를 구청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지지 호소

강진원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는 1일 강진읍 버스터미널 앞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 지지유세에 나선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2년 6개월 만에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는 씨가 말랐으며, 이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며 "이곳 강진에서도 강진 발전의 적임자인 기호 2번 강진원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진원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돼 강진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완 "오해 부추기는 현수막 즉각 철거를"

이병완 국민참여당 광주 서구의원(다 선거구) 후보는 1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모 후보가 선거 현수막에 '이병완 실장을 시로, 000는 구의회로'라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현수막의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은 "민주당 모 후보의 현수막 문구는 이병완 후보가 마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것과 같은 혼란과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해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묻는 한편 법을 떠나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윤광현 "북구 학생 학습권 향상에 노력"

윤광현 광주시 교육의원 제 3선거구(북구) 후보는 1일 "체질별 맞춤식 무상교육과 학교시설 지역민 환원 등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6·2지방선거를 마감하며'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등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하면서 쌓은 행정 노하우를 북구 학생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북구 지역 각 학교 학습도우미 배치,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 등 다양한 교육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앞장"

임종대 광주시 북구 교육의원 후보는 1일 지역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광주교육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선거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임 후보는 이날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 학부모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인성이 중요시되는 교육 정책을 펼치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 면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이 가고싶은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무소속은 야권분열 조장"

민주당 광주시당은 1일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의미를 넘어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의 오만과 무능, 독주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무소속 연대 운운하며 시민들을 현혹하는 분열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명박 정권과 극우세력은 영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권 분열을 조장하고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 북풍에 맞서 연대해도 모자랄 판에 분열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보내줬던 따끔한 질책과 애정 어린 격려에 대해 감사한다"며 "역사의 고비마다 선두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왔던 광주시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여당 "정직하고 능력있는 일꾼 선택을"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광주시당은 1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방자치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당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방자치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칭찬보다 비난을 더 많이 받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지방정치 일당독점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여당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이명박 정권의 전쟁 놀음을 저지시켜야 하고 광주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정치세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정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몸집이지만 골리앗 같은 한나라당과 당당히 맞서고 광주에선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참여당에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